

2023. 11. 4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3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

도로환경처장

김 병 희

02) 2290-6351

녹지팀장

조 은 경

02) 2290-6490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4매

관련홈페이지

www.sisul.or.kr

차 안에서 느끼는 가을의 낭만...서울시설공단, 강변북로 꽃길 조성

- 서울시설공단, 한강변 자동차전용도로 가을맞이 새 단장...강변북로 꽃길 조성·올림픽대로 수목 정비 진행
- (강변북로) 폐기될 국화 화분 2,500여 분 재활용해 한강대교 북단에 꽃길 조성...11월 말까지 감상 가능
- (올림픽대로) 한강변 가로수 500여 주 관목 전정 작업...영동대교~성수대교 구간 양방향 한강 조망 가능

서울시설공단(이사장 한국영)은 가을을 맞이하여 강변북로에 국화꽃길을 조성하고 올림픽대로에 녹지작업을 실시하는 등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시민 편의 증진에 나섰다.

○ 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계절별 경관 개선을 위해 2022년 동부간선도로 장안철교 인근 황화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시작으로 2023년 4월, 동부간선도로 군자교와 중랑교 인근에 백일홍·춘자국 등을 파종해 야생화 꽃길을 조성한 바 있다.

강변북로 한강대교 북단 인근 300m의 녹지대에 화사한 색상으로 뒤덮인 국화꽃길은 11월 말까지 운전 중인 시민에게 가을 정취를 선사할 예정이다.

- 특히 공단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ESG(환경·사회·투명 경영)를 실천하고자 영농업체에서 폐기되는 국화 화분 2,500여 분을 사용해 꽃길을 조성했다.

- 또한 공단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올림픽대로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에 이르는 구간의 한강 조망을 방해하는 가로수 500여 주와 개나리 등 관목 전정 작업을 진행했다.

- 이번 작업으로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은 양방향 운전자 모두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매력적인 가을의 서울을 온전히 느끼는 게 가능해졌다.

-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“자동차전용도로 운전 중에 꽃길과 한강 조망을 통해 가을의 낭만을 느껴보시길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매력이 넘치는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단 시설에서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적용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첨부자료 : 관련사진

〈강변북로 재활용 국화꽃길 모습〉



〈올림픽대로 전경〉

